관세청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11. 16.(월) 15:00

관세청, 국민 아이디어로 정책활로 뚫는다... 공모전 통해 8건 발굴

- '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8건 시상
- 최우수상은 '반도체 장비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국산 부품 활용 지원 효과 기대
- 원산지소명서 통합 제출 등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 가속화

관세청은 11월 16일(월)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8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겪은 관세행정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동 기간 중 총 469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실행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에 대한 내부 전문가 심사, 국민 평가(소통24),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반도체장비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과제가 차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의 경우 완성 장비로 수입신고를 하면 수리 전이라도 보세공장으로 바로 반출해 조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 장비에 결합하려 할 때에는 해당 부품을 수입통관 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국산 부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도 오히려 통관 지연과 물류·관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일한 해외 공급자가 단일 계약에 따라 분할 선적한 장비 부품들이 하나의 완성품을 구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보세공장 생산 부품 일부가 포함되더라도 완성품으로 인정하여 '신고수리전 반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상에는 국민 편의를 대폭 높인 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① 휴대품 반송 절차 비대면 전환

세관 방문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유치·예치확인서 발급, 반송 신청, 보관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② 반송 곤란 해외 직구 물품 관세환급

해외 반송이 어려운 개인 직구 물품을 세관장 확인 하에 폐기한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③ 원산지소명서 첨부 방법 개선

특히 이 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전격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협정별로 원산지소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하나의 서류로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려상에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손실보상금 통지서 불복 절차 안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중량·수량 기재 기준 명확화 △수입신고번호 일련번호 확장 신청·승인 절차 개선 △심사청구서 생년월일 기재 등 4건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과제들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작 외 우수 제안자 33명과 참가자 17명(무작위 추첨)에게도 감사의 뜻을 담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관세청이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소통의 장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별첨) 1.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공모전 수상작 8건 설명자료
2.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공모전 수상작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이병진 (042-481-7670)
		담당자	서기관	강경아 (042-481-77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